

전북대, ACE+ 2주기 중간평가 '우수'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기초학력인증제·융복합 교육 등 차별화된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 호평 받아

전북대학교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2주기 중간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여건 지표와 사업 추진실적,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정량(25점)과 정성(75점)으로 면밀히 살핀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전체 86.94점을 받아 ACE 대학 평균(85.38)과 지방대학 평균(84.94)을 웃도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교육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아 학생 교육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기초학력인증제와 계열을 넘어선 융·복합 교육, 레지던셜칼리지, 오프캠퍼스 학사제도 등의 차별화된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이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교육과정개발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하고 학생역량 평가시스템을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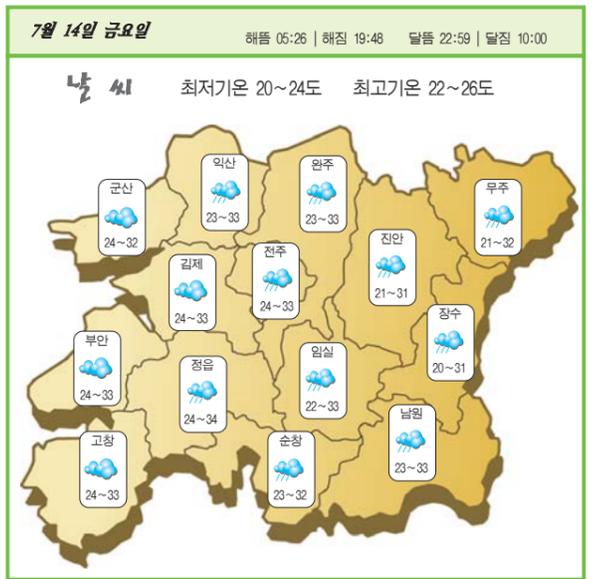
대하는 한편 학생교육 평가단 운영과 교육활동 및 성과관련 빅데이터 구축 등이 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교양 및 전공교육과 교수 학습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과 실무능력, 융·복합 능력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남호 총장은 "이번 평가는 우리대학이 학생들이 기초역량을 탄탄히 하고 다양한 경험을 체득해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학생교육 방향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초교육 강화형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룰 모험생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전북대학교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2주기 중간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10명 위촉

1차 프로보노데이 추진... 1대1 맞춤형 상담 지원

전주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나섰다.

13일 전주시는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11명을 위촉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과 1차 프로보노데이를 추진했다.

이날 위촉된 프로보노는 김호진 공인노무사, 김명숙 서해대학교 교수, 김봉영 세무사 등 경영, 마케팅, 재무, 회계, 노무, 기술개발의 4개 분야, 총 11명으로, 향후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상시 무료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1차 프로보

노데이에는 전주시 사회적경제기업 15개소와 은두레공동체 5개소가 참여했으며, 전주시는 각 조직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보노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지원했다.

김기평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장은 "프로보노 서비스, 사회적경제 청년서포터즈의 SNS 홍보지원, 공공구매 추진단 운영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교육 실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주민센터는 지난 12일 주민센터 1층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위치가 줄어들어 가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서서학동은 24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5개 조로 관내 공원지역 쓰레기 줍기, 분리수거함 정비 등 환경정비에 힘을 쓰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및 계도 등을 실시했다.

서서학동 최현식 동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쾌적한 환경조성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안전이 우선이다"며 "개별행동보다는 조별로 함께 이동할 당부하며 안전사고 없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 전주에 반하다

주한 미국대사관 대표단 방문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한옥마을 등에서 전통 문화 체험 즐겨

전주의 전통문화에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비롯한 주한 미국대사관 대표단이 매료됐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비롯한 주한미국대사관 대표단이 13일과 14일, 2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

마크 내퍼 대사 대리는 첫 공식일정으로 한지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한지의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전시실과 홍보관을 둘러봤다.

그는 다나무를 채취하고 곱질을 벗겨 말리고 찌는 등의 복잡한 수고로운 과정이 끝난 후 작품으로 만들어져 전시된 다채로운 색의 한지작품을 감상하며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어, 전주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김승수 전주시장을 예방한 마크 내퍼 대사 대리는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주 문화특별지정'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전주 시민을 위한 열린 책방인 '전주책방'과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꿈앤커피' 커피숍 등을 둘러봤다.

또한, 마크 내퍼 대사 대리는 첫날



13일 전주를 방문한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비롯한 주한미국대사관 대표단이 시청을 찾아 김승수 전주시장을 예방했다.

일정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을 방문해 한국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들을 살펴보고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전주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손꼽았던 전주한옥마을 내 경기전과 전통성당, 향교, 오목대, 자만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전주 시민들이 수백년 동안 지켜온 전주의 전통문화도 몸소 체험했다.

이날 전주를 방문한 미국대사관 외교관 일행은 한옥마을 소리문화관에서 열린 현대무용과 전통 농악, 비보잉과 명배우들이 어우러진 퓨전마당

창극 '놀부가 됐다'를 관람하는 것으로 첫날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마크 내퍼 대사 대리를 비롯한 주한 미국대사관 일행의 전주 방문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으로 전주를 문화가 꽃 피울 세계문화의 중심지 '문화특별지정'로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세계적 여행잡지 '트리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3대 관광명소에 선정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세계 최초로 도시 전역이 국제슬로시티로 확대, 재인증됐다. /인재용 기자

도박중독문제 재정 프로그램 실시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강의

전주시보건소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도박중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성도박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법률과 재정, 인지 행동 치료, 동기강화 집단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도박중독문제 재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중독 예방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에서 문제성도박자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내용 위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해 금융복지상담사의 강의와 상담으로 진행했다.

향후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도박문제 재정 프로그램 2회, 법률 프로그램 3회, 인지행동치료 3회,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3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알코올,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하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